

## 卷頭言

# 發明의 날은 法定紀念日로 制定되어야 한다

또 다시 非法定 紀念日인 發明의 날 紀念 全國發明獎勵大會가 한달 앞으로 박두했다.

지난해 本誌는 장장 11面に 걸쳐 發明의 날의 法定 制定을 促求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지난 1년을 뒤돌아 볼 때 國內外的으로 밀어닥친 거센 民主化의 물결에 아직 검토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發明特許界의 바램이다.

이는 時局이 安定되면 검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언필칭 發明의 날을 法定紀念日로 制定되어야 한다.

發明의 날은 法定 紀念日로 制定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을 사는 企業人 및 發明人은 물론 全國民의 한결같은 念願으로,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침이 없다.

물론 각종 法定 紀念日을 統閉合하는 마당에 새로운 法定 紀念日의 制定을 주장하는 데는 異見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없애는 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不變의 眞理로서 再論의 여지조차 없다.

사실 發明의 날을 法定 紀念日로 制定해야 한다는 주장은 때가 늦어도 너무 늦은 感이 없지 않다.

또 發明의 重要性에 비추어 發明의 날을 制定하지 않은 당국의 政策 또한 失策이었다 할 수 있다.

이는 發明이 社會 全般에 미치고 있는 影響이 立證해주고 있다.

現代는 누가 뭐라해도 發明의 時代이다. 우리의 日常生活이나 社會生活에 發明의 惠澤을 받지 않은 分野는 거의 없으며, 또한 發明의 힘을 빌리지 않고 움직이는 分野도 거의 없다.

發明은 우리의 生活과 社會와 世界에 깊고 密接하게 관계하고 있으며,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다.

이러한 發明은 한國家에 있어서의 國防의 힘이 되고, 經濟의 힘이 되고, 또 外交의 힘이 되어 國力의 커다란 基盤과 背景이 되고 있다.

그래서 發明의 水率이 높으면 強大國 및 先進國이라고 하며, 그것의 水率이 낮으면 弱小國 및 後進國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世界 各國이 훌륭한 發明人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要望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先進國 대열에 참여하려고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商品輸出은 물론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은 보다 많은 發明人을 養成하여 優秀 發明을 創出해내는 것이다.

이는 外國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日本 등 오늘의 先進國들은 이미 50여년전부터 각종 發明行事를 國家的 次元에서 實施해 오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先進國을 誕生시켰다.

發明의 重要性은 해를 거듭할 수록 그 比重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날로 加重되어가는 先進國들의 知的所有權開放壓力만으로는 충분히 說明이 되고 남는다.

따라서 發明의 날의 法定 紀念日로의 制定은 각종 國定 紀念日 統閉合에 따라 필히 이루어져야 할 大題라 할 수 있다.

따지고보면 發明의 重要性은 예나 지금이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는 관제 당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57년 第1回 發明의 날 行事가 치뤄질때만해도 發明의 날은 國家가 치루는 行事중에서도 가장 큰 行事였었다.

1957년 2월 26일 官報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商工部告示 第256號를 통해 『國民의 發明思想을 昂揚하며 科學技術의 普及向上 및 發明事業의 獎勵를 圖謀하고자 「發明의 날」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 단기 4290년 2월 26일. 商工部長 官 金一煥. 發明의 날 5월 19일』이라고 告示하고 있다.

또 이날 第19次 國務會議에서 당시 李承晚大統領은 諭示를 통해 『發明者나 發明品을 尊重하고 獎勵하되 물론 名譽도 必要하겠지만 賞도 주고 經濟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니 發明品을 生産함에 있어 정부나 민간에서 크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이어 第1回 發明의 날 다음날인 1957년 5월 20日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發明의 날 紀念行事에는 서울의 경우 商工部·文敎部·交通部長官을 비롯하여 당시 特許局長(李允模)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紀念式에서 李大統領은 諭示를 통해 『근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 發明을 많이 해내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工業과 産業이 發展하려면 무엇보다도 새 發明이 지금보다도 더 많아야만 속히 進전되 나갈 수 있을 것이니 좋은 發明이 많이 나오도록 정부와 민간에서 많이 도와서 우리나라를 發展시켜 나가는데 다같이 힘써 나가도록 오늘 第1回 「發明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발명가에게 치하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發明의 날 紀念 行事는 全國的인 行事로 정부수립 이후 가장 큰 行事로 손꼽히고 있다.

서울 중앙청 광장 行事에서는 大統領 諭示·文敎部長官 紀念辭·民議院 副議長 祝辭에 이어 ▲發明品 企業化 및 優良商標表彰 ▲發明의 날 制定委員 表彰 ▲發明의 날 制定 紀念 發明家の

成功談·發明思想涵養을 위한 論文·放送劇·作文·發明의 노래·標語 현상모집 入賞者 發表 ▲大統領下賜煙草傳達 및 紀念品授與 등이 있었다.

또 地方에서는 道廳소재지 단위로 紀念式을 가진과 함께 全國 各級學校단위로도 行事를 가졌다.

이와 함께 全國에 發明의 날을 紀念하는 포스터와 標語 貼付·베라撒布·선전탑 현수막 建立·애드버튼揭揚을 비롯하여 新聞에 特別談話 發表 및 特別記事 의뢰, 放送에 紀念放送·放送劇·放送音樂(發明의 노래)을 의뢰 實施했고, 保健社會부와 協助 於昌慶苑에 發明의 집을 建立하고, 遞信부와 協助 紀念郵票 및 스탬프를 發刊하고, 各道단위로 發明思想昂揚에 관한 學生 翁裨대회등을 開催하여 全國이 發明의 날 行事의 熱氣로 가득했다.

이같은 全國的인 發明의 날 紀念行事는 1959년 第3回 行事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 第4回 行事는 4.19학생의거로, 1961년 第6回 行事는 5.16군사혁명으로 流産되고, 1962년 第6回 行事부터 1965년 第9回 行事까지는 1959년 第3回 行事부터와 마찬가지로 韓國發明協會 主權로 開催되었다.

또 1966년 第10回 行事부터 1972년 第16回 行事까지는 大韓發明協會 主權로 開催되었는데, 1966년 第10回 行事때는 오늘날 法定 紀念日의 기초가 된 「第1回 科學技術者大會」도 같은 날 開催되었다. 따라서 科學의 날은 發明의 날의 分身이라 할 수 있다.

16회까지의 行事가 치뤄지는 동안 世宗大王 이후 끊겼던 發明思想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靑天날벼락인가.

發明界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1973년 3월 30일 國務會議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 第6615號로 公布된 각종 紀念日에 관한 規定은 發明의 重要性을 忘却하고 發明의 날을 商工의 날에 統閉合하고, 發明의 날의 分身인 科學의 날(4월 21일)을 法定紀念日로 公布하는 錯誤를 범했다.

우리는 여기서 科學의 날을 法定 紀念日로 公布한데 대해 異論을 提起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科學의 날 制定의 重要性도 認定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發明의 날 制定도 科學의 날 制定 못지 않게 重要하고, 發明의 날과 科學의 날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나 世界的인 추세로 미루어 볼 때 그 어떤 法定 紀念日보다도 重要한만큼 하루 빨리 發明의 날을 制定하여 두 行사가 盛大하게 치뤄져야함을 強調하는 바이다.

1973년 각종 紀念日 등에 관한 規定 審議에서 發明의 날이 제외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發明의 날 行사를 主催하던 大韓發明協會가 財政難으로 實質 業務能力을 상실하여 發明의 날 制定建議조차 할 수 없는 立場이었고, 이에 따라 全經聯이 주축이 되어 胎動중이던 韓國特許協會도 이제 겨우 國胎動단계라서 發明의 날 制定을 建議할 수가 없었다.

雪上加霜으로 오늘의 特許廳도 당시에는 商工部 特許局에 불과하여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發明의 날이 歷史의 뒷章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束手無策이었다.

이렇게하여 73년부터 發明의 날은 사라졌다. 뜻있는 企業人和 發明人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계속적인 建議에도 사라진 發明의 날은 오늘까지 깊은 겨울잠을 자고있다.

한편 1976년 12월 31일 法律 第2957號로 公布된 정부조직법 改正에 의거 1977년 3월 12일 大統領令 第8483號에 따라 商工部 特許局이 特許廳으로 승격되면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發明振興의 重要性은 第5共和國이 出帆하면서 本格化되어 1982년 特許廳 公告 第82—12號에 의거 發明의 날 行사에 버금가는 「全國發明 獎勵大會」로, 새로 誕生한 韓國發明特許協會가 主管이 되어 特許廳 主催로 實施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韓國發明特許協會가 主管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行事일은 1957년에 制定된 發明의 날인 5월 19일로 하고 있다. 이 行事때마다 韓國發明特許協會는 發明의 날이 언젠가는 부활되리라 확신하며 비록 法定은 아니지만 그 回數를 빠짐없이 늘려가고, 對外的으로는 「全國發明獎勵大會」로 치뤄오고 있지만 內的으로는 發明의 날 紀念行사로 끈질기게 지켜오고 있다.

이는 發明의 重要性이 社會 全分野에 擴撒되면서 男女老少 수많은 發明人和 企業人들의 한결같은 念願을 外面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發明의 날 制定의 當爲性은 이제 더 이상 再論의 여지가 없다.

國內外的 여건으로 미루어 보나, 앞으로 정부가 指向해 나갈 政策方向으로 보나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大題임에도 더 이상의 說明이 必要치 않다. <○>

## 特許廳·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 特許管理專擔部署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實施 勸獎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와 職務發明補償制度 實施는 비단 大企業뿐만 아니라 大企業과의 競爭에서 이기고 나아가 中堅企業 또는 大企業으로 跳躍하려는 中小企業에게는 더욱 必要한 制度인 것입니다.

날로 熾烈해지는 國內外 競爭與件속에서 企業經營戰略의 要諦는 持續的인 自體 研究開發을 통한 技術革新과 新製品 開發이 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企業의 經營實情에 맞는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의 採擇과 效率的 運用은 큰 도움이 될 것임을 確信합니다. 아울러 이미 이 制度들을 採擇하여 實施하고 있는 企業은 制度의 改善 및 補償金의 引上等 制度運營을 더욱 活性化 함으로써 어려운 經濟環境 속에서 企業의 繁榮을 기하고 나아가 國家產業發展을 위한 積極的이고 獻身的인 參與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貴社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